

# MUJINE

*Heritage*



04

APRIL 2014

SKIRT HARMONY

\_\_\_오늘의 나, 류승룡  
커트 하시겠습니까?\_\_\_

**NEUTRAL IN APRIL**

WHAT'S YOUR PERFUME?  
LASHES UP\_\_\_

IWC

SCHAFFHAUSEN





## 줄리안 오피를 둘러싼 오해의 말들

줄리언 오피는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좋다. 평범한 재료를 이용해 비범한 작품을 만들고, 엄격함과 조율도 훌륭하지만 그를 둘러싼 대개의 말들은 가짜다. 서울에 온 그를 만났다.

—EDITOR 김만나 WRITER 서정임(경향<article> 수석기자)

줄리언 오피는 데미안 허스트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미술애호가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현대 미술가다. 도시 풍경을 미니멀하고 납작한 입체물로 만든 후 공업용 도로로 컬러링한 초기 작품부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화해 운동감 있게 표현한 디오라마 스타일의 LED 패널, 사각의 나무 프레임에 플라스틱 시트지를 오려 붙인 비닐페인팅까지, 최근 10여 년간 그의 작품은 공공장소와 빌딩의 파사드 같은 일상과 근접한 공간에, 그리고 아트페어에 빈번하게 출현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어왔다. 그런 유명한, 그래서 이제는 그다지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줄리언 오피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다(2. 13~3. 23). 이번 개인전에서 오피는 그 특유의 비닐페인팅과 LED 패널, 대형 두상 조각 등 신작을 대거 공개했다.

전시 출품작 중 과거 런던이나 뭄바이에서 진행한 시리즈의 연장선인 비닐페인팅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Walking in Sinsa-dong 1, 2, 3〉 등은 서울의 보행자들을 모델로 삼은 신작들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진가로 부터 서울 곳곳에서 걷는 사람들을 찍은 약 3천 장의 사진을 전달받았다. 오피는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 “한 작품에 들어간 인물들은 한 장의 사진에서 나온 게 아니다. 3천 장의 사진 속 인물들 중 흥미롭게 느껴지는 10여 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그들을 하나의 화폭에 배합했다”고 설명한 후,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서 하는 전시에 굳이 런던 사람들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전 작품과는 달리 비닐페인팅의 서울 버전은 인물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거나 그림자가 없는 등 다른 드로잉 방법을 사용했다. 신작의 변화에 대해 그는 말했다. “런던에서 찍은 사진 이미지를 보면 대부분 검은색, 회색, 흰색 옷을 입고 있고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인물의 이미지를 몇 개의 도형과 선으로 단순화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한 건 그 때문

—1 작가: 줄리언 오피, Julian Opie, Julian, 2012 ©Julian Opie courtesy Kukje Gallery  
2 작가: 줄리언 오피, Julian Opie, Julian, 2012 ©Julian Opie courtesy Alan Cristea(UK)  
3~5 서울 곳곳에서 걷는 사람들을 찍은 3천 장의 사진으로 작업한 신작들을 선보인 국제갤러리 K2와 실외 전경. 6, 7 국제갤러리 K3에서 선보인 대형 3D 조각 작품. —

이다. 이번 작품들은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렸다. 서울의 이미지는 빛이 밝아 그림자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모자 등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주목할 또 다른 작품은 인물의 두상을 거대한 형태로 형상화한 3D 조각. 그간 10여 점의 3D 조각품을 작은 형태로 제작하긴 했지만 대형으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피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남매 ‘릴리’와 ‘핀’을 모델로 한 두상 조각 2점은 그가 3년 전부터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일 먼저 인물의 머리를 스캔한다. 이 과정은 19세기 초 사진을 처음 발명했을 때처럼 원시적이고 거칠게 진행했다. 핀으로 머리를 고정한 후 여러 개의 스캐닝 카메라로 사방에서 촬영했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조각기를 사용해 레이저 커팅했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인물의 그림을 그렸다. 인물의 고유 특징을 담은 드로잉을 조각품으로 옮겨야 했는데, 기술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 눈대중으로 맞춰가며 손으로 직접 했다. 특히 색을 입히는 작업은 반드시 내가 해야 했다. 그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었다.” 줄리언 오피의 작업은 팝아트적이고 미술과 신기술을 접목한다. 대다수 사람 역시 그를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판단하지만 이는 오피 작품 세계의 부분적인 요소일 뿐이다. 다양한 매체를 두루 섭렵하거나 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행위는 좁게는 ‘회화’, 넓게는 ‘전통적 미술’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에게 고전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자 실험 대상이다. 일례로 비닐페인팅과 LED 패널은 직사각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전통적 회화의 주된 소재인 인물과 풍경으로 채워져 있다. 그럼에도 전혀 구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작가가 서양미술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회화적 본질인 재현의 문제와 기본요소인 사각틀을 현대적 미감과 기술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그

의 작품을 팝아트적이라 생각하게 만든, 픽토그램처럼 단순화된 인물 표현은 빠르게 쏟아지는 정보와 강렬한 자극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회화에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오피는 “작품을 통해 특별하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다. 나는 미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습관이라 말해도 될 만큼이다. 무엇보다 나는 날마다 어떤 것을 그려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내 작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작품이 어떤 주제에 간혀 해석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덧붙인 말은 이것. “작업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시작한다. 주제나 소재는 자연뿐 아니라 문화이기도 하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 하나가 고전시대 전후의 역사적 페인팅이다. 과거 화가들이 어떻게 그렸는지를 연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를 깨닫기도 한다.” 전통적인 미술에서 모티프를 얻으며, 현재에 속한 사람들과 연결하는 행위는 줄리언 오피 작업의 본질. 이와 관련한 대답에서 철학자적 풍모마저 느껴져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의 말이 미안할 정도였다. “우리의 존재는 역사의 표면에서만 존재한다. 표면 밑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의 법칙이다. 표면 밑에 있는 것과 연결하지 않거나 이를 배우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모르는 셈이다. 예술도 그렇다. 예술이 무언가를 이해하려 할 때 표면 아래의 것들과 연결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작가의 작품과 고대인의 작품은 차이가 없다.” 자신의 작품이 몇 개의 키워드로 해석되는 것을 의식한 탓일까. 그는 “전시는 여러 작업 중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소수를 선정해 보여주는 과정”이라 말하며 관람객에게 자신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방문하라며 엄살을 떨었다. 웹사이트 주소는 심플하다. 줄리언 오피닷컴(www.julianopie.com)이다. ❶

